市·道 졸업생 수능 응시 증가… "최상위권 경쟁 치열"

광주 1만6846·전남 1만3941명
재학생·검정고시생 전년 대비 ↑
"의대 파업 영향‥ 재학생 불리 우려"

오는 11월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최상위권 응시생'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응시에서는 의대 증원 등의 여파로 변동성이 커져 '최상위권 n수생'에 해당하는 졸업생과 검정고시 응시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능 등급의 왜곡이 생길 수 있어 재학생들에게 불리한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광주지역 응시생은 총 1만6846명, 전남은 1만3941명으로 집계됐다.

먼저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광주지역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지원자는 1만6846명으로, 지난해보다 757명(4.7%) 소폭 증가했다.

이중 재학생은 지난해 1만1112명 대비 572명(5.1%) 증가한 1만1684명(69.4%)으로 나타났다. 졸업생은 전년도 4332명보다 88명(2.0%) 늘어난 4420명(26.2%), 검정고시생 등 기타 지원자는 지난해 645명 대비 97명(15.0%) 증가한 742명(4.4%)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역시 지난해 대비 478명(3.6%)이 증가한 총 1만3941명이 응시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응시자 중 재학생은 지난해보다 458명 늘어난 1만1192명(80.3%), 졸업생·기타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20명 늘어난 2749명(19.7%)이 원서를 접수했다.

올해 수능의 경우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총 4610명으로 지난해 대비 1497명 증가해 대학 입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최상위권 졸업생·검정고시 등의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남대 또는 조선대 의대 재학생들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권 자연계열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수능에 재도전해 의대 진학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전남교육청은 고3 재학생 증가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서울 16개 대학 정시 확대·무전공(전공자율선택) 선발 확대·첨단학과 증원·정시모집 다군 모집대학 확대 등이 수능 지원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올해 수능 응시 졸업생 중 최상위권 n수생이 크게 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의대 파업으로 인한 정상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데다가 서울권 의과 대학 정원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연쇄적 효과로 보인다"며 "지난해보다 상위권 졸업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 올해 수능에서는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시 모집 시 상위권 졸업생들이 수능만 보고 대학입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왜곡이 생겨 재학생 응시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입시에서 정시가 확대된 만큼, 재학생들은 끝까지 수능을 놓으면 안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전국 수능 지원자는 52만2670명으로 지난해 50만4588명보다 1만882명(3.6%) 증가했다.

전국 지원자는 재학생이 34만777명(65.2%)으로 전년도보다 1만4131명(4.3%) 증가했으며, 졸업생은 16만1784명(31.0%)으로 전년도 대비 2042명(1.3%) 증가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2만109명(3.8%)으로 전년도보다 1909명(10.5%) 늘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찬반논란 가열

잇따른 파행에 연기됐던 공청회
환경단체 "공청회 무효화" 반발
한수원 "소통 늘리고 의견 수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두고 주민·환경단체 반발과 지자체의 대관 불허 등의 이유로 무산됐던 주민공청회가 영광서 시작됐지만, 주민들과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한수원)는 11일 영광 호텔더스타 웨딩컨벤션에서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주민공청회는 법적절차에 따른 것이며,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6곳(영광·함평·장성·무안·부안·고창) 중 영광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한수원은 주민공청회에 앞서 "이번 주민공청회는 찬반을 다투거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며 주민 의견을 받고 최종평가서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면서 "한빛 1·2호기의 정상운전 및 사고 시 방출된 방사성물질로 인해 주민이 받는 방사선 영향은 법적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한수원이 주민들을 제대로 설득했냐는 것이다.

공청회에 앞서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이 한수원 측에 요구했던 것은 크게 4가지로 '한빛원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광군 주민공청회를 가장 마지막에 할 것',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전문가를 초빙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 '공청회 사회자와 좌장을 결정할 때 주민들과 논의를 한 뒤 진행할 것'이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니 받아들이기 쉽도록 소통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중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입장이다. 이에 이들은 11일 오후 1시께 공청회가 열린 호텔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주민공청회를 원천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한수원과 한수원의 거수기로 전락한 영광군청은 주민공청회를 강행하기 전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재작성하라"며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공청회 무효화를 촉구하는 영광군 주민 정모(42)씨는 "공청회 명칭부터 초안에 관한 것인데 한수원의 초안은 투명성과 타당성 부분에 있어 명백한 결함이 있다"며 "사고관리계획서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주민들은 한수원의 초안을 보고 안정성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엉터리 초안을 가지고와 가정만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려 하는데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아 주민 입장에서도 이런 사고 발생에 대한 가정으로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26일 고창에서 주민공청회가 계속해서 열릴 예정이다. 박찬 기자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불시훈련 광주소방안전본부와 동부소방서 대원들이 11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및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에서 화재 발생으로 인한 건물내 사상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다중이용시설 전기차 충전소 화재로 인한 복합재난 대응과 소방관서 통제단 운영능력 강화 등을 위해 실시했다. 김양배 기자

"추석 귀성길 안전운전"… 가을철 교통사고 치사율 1위

광주 1위 10월·전남 1위 9월
기상요인·고속도로 이용 증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연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 가을철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운전이 당부 된다.

11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1~2023년 시도별 월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에서 총 155명, 전남에서 총 68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계절 별로는 광주에서 △가을철(9~11월)·50명 △여름철(6~8월)·43명 △봄철(3~5월)·37명 △겨울철(12~2월)·25명 순이었고 월별로는 10월과 7월이 각각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에서는 같은 기간 △가을철(9~11월)·198명 △여름철(6~8월)·170명 △봄철(3~5월)·169명 △겨울철(12~2월)·146명 순으로, 월별로는 9월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11월이 6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가을철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이유로는 안개 발생이 잦은 기상적 요인과 추석 연휴 및 각종 공휴일로 인한 9~10월 고속도로 이용량이 많은 시기적 특성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만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차장은 "안개 구간에서는 전조등·비상등을 사용하고 교차로에선 일시 정지 후 교통상황을 확인한 뒤 주행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며 "장거리 운전 시 주기적인 휴식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제한속도 준수,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노면표시)을 주의 깊게 보며 도로 정보에 대한 정보 확인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찬 기자

운암2동 경로당 추석한마당 광주 북구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엠마우스복지관 종사자들이 11일 운암2동의 한 경로당에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정성들여 만든 음식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폭염 속 사망한 에어컨 기사 한달만에 장례 치른다

삼성전자·전남교육청, 유족에 사죄

장성의 한 학교에서 에어컨설치 작업 중 온열질환으로 숨진 20대 노동자의 장례가 한달만에 치뤄진다.

유족들이 요구했던 원청 책임자인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과 발주처인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분향소를 찾아 사과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오 부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는 11일 오전 광주시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 마련된 청년 노동자 양모(27)씨의 분향소를 찾았다.

오 부사장은 고인의 모친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원인을 조사한 뒤 폭염대책 등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양씨 모친은 "재발 방지 대책을 잘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날 오후 김 전남도교육감도 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에 유족은 사과를 받아들이고 분향소를 철거, 12일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4시 40분께 장성군 남면의 한 중학교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다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윤준명 기자